

나레이티브를 통한 아동의 애착 평가의 임상적 유용성: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 문제 행동, 가족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 미 경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애착 유형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 아동의 문제행동과 가족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나레이티브를 통한 아동의 애착 평가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6-9세 연령의 K대학병원 소아정신과를 내원한 62명의 아동과 어머니들이다. 아동의 애착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Manchester Attachment Story Task)가 이용되어졌고,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 관찰을 위해서는 정서적 가용성 척도(Emotional Availability Scale)가 이용되어졌으며,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Fury의 가족화 척도가 이용되어졌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어머니들이 아동인성검사(K-PIC)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비적대적 행동에 있어 안정 대 저항 애착 유형간 차이가 나타났고, 아동의 반응성과 놀이에 부모를 관련시키는 행동에 있어 안정 대 회피 애착 유형간 차이가 있었다. 아동들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자아탄력, 우울, 비행 척도에 있어 안정 대 저항 애착 유형간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생명력/ 창조성, 기피함 척도에 있어 안정 대 회피 애착 유형간 차이가 나타났다. 안정 대 저항 애착 유형 간에는 가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주요어 : 아동 애착,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문제행동, 가족 인식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31-C00298).

1) 교신저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mkjin@nsu.ac.kr)

I. 서론

애착 연구자인 Bowlby(1969)에 따르면 개인은 생애 초기에 맺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조직하게 되고,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은 개인의 후속적 관계형성 방식이나 그것에 의해 영향 받는 행동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양육자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에 바탕을 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며, 성장한 이후에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과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며 성장한 이후에도 타인과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애착 관계의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발달은 내적 작동 모델의 안정성 및 변화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고, 특히 Ainsworth(1978)는 ‘낯선 상황 실험’을 개발하여 애착 측정의 방법론적 측면에 기여함으로써 애착 연구의 활기를 띄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애착 측정 도구의 개발 이후 영아 애착 안정성과 관련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나유미, 1996; 박웅임, 1994; 이영환, 1993; 장미자, 1998)과 단기간 부모-자녀 애착 표상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박웅임과 유명희, 1997; Lyons-Ruth, Repacholi, McLeod, Silva, 1991)들이 보고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유아기 애착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들(Bretherton, Ridgway, & Cassidy, 1990; Main &

Cassidy, 1988)이 개발 되면서 애착 관계의 안정성 및 변화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밀화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볼 때, 애착 연구의 상당수가 영아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고, 유아기 이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애착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온 반면,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또한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했던 유아기와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애착 표상 유형이 어떠한지를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를 통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한편 애착 이론에서는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양육자의 양육 행동 및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 있어 어떠한 양육행동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특히 양육자의 양육 행동들 중 어머니가 자녀의 신호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양육의 민감성이 애착 안정성과 관련된다고 보고되어 왔으며(박웅임, 1994;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De Wolf, & van IJzendoorn, 1997; Grossmann, Grossmann, Spangler, Suess, & Unzner, 1985; van IJzendoorn, 1995), 회피 유형을 형성한 영아들의 어머니들은 차갑고 거부하는 양육행동을 보였고, 저항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의 어머니들은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행동 및 간섭하는(interfering)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elsky, Rovine, & Taylor, 1984; Isabella, & Belsky, 1991).

국내문헌들에서도 역시 다양한 양육 행동들과 애착 안정성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박용임(1994)은 영아에게 정서적으로 무관심하고 방임하며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등의 부당한 양육행동이 불안정 애착 형성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성희용 외(2005)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 특성 중 정서적 지지, 자율성 존중, 과제 지시, 유아에 대한 믿음이 애착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지듯이,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애착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져 온 것과 관련하여,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 또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아동의 애착 유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애착 이론의 가정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 모델의 형태로 계속되고 그것은 후속적 관계에 대한 기대 및 사회적 사건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owlby, 1969).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비반응적이고 민감하지 못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의사소통 패턴과 부적응적인 감정 조절 패턴을 갖을 수 있고, 또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과 신뢰할 수 있는 타인 및 세상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키지 못하여, 불안이나 좌절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적응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윤진영,

2001).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러한 불안정 애착과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주로 청소년들의 애착관계와 문제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Muris와 그의 동료들(2003)은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문제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Allen(1998) 또한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일수록 내현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청소년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이소희, 2001; 윤진영, 2001).

그러나 어떤 종류의 애착 유형이 어떤 종류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측정도구와 다양한 대상을 사용하는 등 연구방법에서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Kobak 등(1991)은 우울과 몰두형 애착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고, Rosenstein과 Horowitz(1996)는 몰두형 애착이 정동장애와 회피형 애착이 품행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몰두형 애착이 안정정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장휘숙(1997)은 회피형의 청소년들이 우울증 척도, 강박증 등의 내향성 척도와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를 통해 분류되어진 각 애착 유형별로 어떠한 문제행동들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Kaplan과 Main(1985)은 그림의 비언어적인 본질들이 아동으로 하여금 감정들과 태

도들을 자유로이 표현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아동들의 그림들이 애착 표상을 나타내는 풍부한 방법들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Bowlby (1973) 역시 애착 경험들의 표상들, 구체적으로 내적작동모델이 그림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가족 그림에서 어떤 특징들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애착 유형별로 그림에 있어 특징들이 나타남이 보고되어 졌다(김숙령, 1995; 진미경과 이경숙, 2007; Fury, 1996; Kaplan & Main, 1985; Mayers, 1978; Weinstein, 1965). 구체적으로 불안정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이 그림에 있어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 기괴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은 가족에 대한 긍지, 생명력과 같은 긍정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미경과 이경숙, 2007). 또한 정서적 부적응 집단의 아동들의 그림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생략하거나 가족구성원 사이에 장애물을 더 많이 그리는 특징들이 나타났다(Myers, 1978; Weinstein, 1965).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나레이티브 분석을 통한 애착 관계 평가의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들의 애착 유형에 따라 가족화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 있어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아기와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나레이티브 분석을 통해 아동 애착 유형을 분류해보고,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문제행동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가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나레이티브 분석에 의한 애착 표상 도구의 유용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레이티브 분석을 통한 애착 평가 도구의 유용성이 입증된다면, 임상장면에서 아동들의 애착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그동안 애착 연구에서 도구의 부재로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영아기 이후 아동들의 애착 관계 연구와 임상군 아동들의 애착 관계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아동상담 및 부모상담 영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맨체스터 애착이야기 검사를 통해 아동의 애착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 행동은 아동의 애착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문제행동들은 아동의 애착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애착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표집은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K대학병원 소아정신과를 내원하는 만 6세부터 만 9세 아동들 6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부모-자녀 관계 평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와 구조화된 상황에 대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이 촬영되었다. 아동들의 가족화와 아동인성검사(K-PIC: 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설문지의 경우 병원의 임상심리사에 의해 실시되었던 자료가 활용되었다.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가족화와 아동인성검사 자료가 없는 경우 진료를 위한 내원 시 실시하였으나, 내원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실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맨체스터 애착이야기와 상호작용 분석에 참여한 아동 수와 가족화 및 아동인성검사 분석에 참여한 아동 수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중류층 가정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세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모든 어머니가 고등학교졸업 이상 이었고, 82% 이상이 전문대졸업 이상이었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7.5세였고,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남아가 47명, 여아가 15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부모자녀 관계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제공되었다.

2. 연구도구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본 연구에서 아동들의 애착 관계를 평가하

기 위해 이용된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는 Green과 동료들(2000)에 의해 낯선 상황실험의 개념과 성인애착면접의 개념 및 방법론을 통합하여 고안된 도구이다. 이들은 평가 도구에 있어 연령 변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만 4.5세부터 만 9.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하였다.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의 절차는 양육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네 가지 에피소드(다쳤을 때, 아플 때, 악몽을 꾸었을 때,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실험자는 각각의 상황을 연출하고 각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아동에게 요구하며, 각 상황에 대하여 아동은 인형놀이를 통해 이야기를 완성하게 된다.

아동의 이야기 내용과 아동이 실험 중에 보이는 행동을 바탕으로 아동이 평상시에 인식한 양육자의 양육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이야기의 일관성(coherence)이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애착 유형이 분류된다. 아동이 인식한 양육자의 양육 행동들은 9점 척도들로 근접성 추구(proximity), 양육자의 따뜻함(carer warmth), 양육자 민감성(carer sensitivity), 자기 돌봄(self-care), 강압적(intrusiveness), 갈등이 있는 행동(conflicted behavior)등의 척도들로 구성된다. 아동의 이야기의 일관성(coherence) 평가에 있어서는, 담화 내용이 얼마나 진실 된 것인지(질적인 측면), 담화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지(양적인 측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관련성의 측면), 어법상 명확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 하는지(양식의 측면)가 평가된다(진미경과 유미숙, 2005; Green, Stanley, & Goldwyn, 2003).

이러한 척도들을 바탕으로 애착의 유형 분류는 크게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비조직화 유형으로 분류되어진다. 각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스트레스 시 양육자의 돌봄을 통해 스트레스가 완화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안정애착의 아동은 스트레스를 공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양육자의 돌봄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완화됨을 보여준다. 회피유형의 아동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육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자기 돌봄의 형태를 보이거나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거부를 보인다. 저항애착 유형의 아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양육자를 등장시키지만,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만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상반되는 행동(contradictory behavior)들을 보이게 된다. 비조직화 유형의 아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1)전략(strategy) 자체가 부재이거나, 2)여러 가지 전략들을 혼합하여 보이며, 3)동시적 혹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상반된 행동, 4) 맥락 밖의 상반된 행동으로의 갑작스런 움직임, 5) 불완전한 움직임들, 순간적인 얼어붙는 듯한 행동이나 정지 자세, 6)부모를 향한 두려움, 7)직접적인 비조직화된 행동 등을 보인다(진미경과 유미숙, 2005; Green, Stanley, & Goldwyn, 2003).

본 도구로 측정된 아동의 애착유형과 성인 애착면접을 통해 측정한 아동의 어머니들의 애착유형과 일치도가 61%에서 65% 사이의 수치를 보여(Green, Stanley, & Goldwyn, 2003), 좋은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가진 도구로 평가되고 있으며(진미경과 이경숙, 2007), 최근 국내 연

구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진미경과 이경숙, 2007).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과 대학원생 2명이 검사에 대한 워크숍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부터 검사 실행에 대한 설명과 매뉴얼에 따른 일정한 훈련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 전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고, 분석은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절차와 평가를 위한 워크숍을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수하고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한 전문가와 평가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두 평정자간 일치도는 $k=.91$, $p=.00$ 였다. 불일치를 보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동들이 네 가지 구조화된 상황(방안에 있는 놀이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자유놀이 상황, 장난감을 함께 정리하는 상황, 퍼즐 함께 맞추기)을 통해 상호작용이 관찰 평가 되어졌다.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관찰과 평가를 위해서는 정서적 가용성 척도(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가용성 척도는 Biringen (2000)과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세 개의 부모 행동 척도들과 두 개의 아동 행동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척도들은 9점 척도로 부모 행동 척도는 민감성(sensitivity) 척도, 구조화(structuring) 척도, 비침해적인(nonintrusiveness) 그리고 비적대적인(nonhostility) 척도로 구성되어 지며, 아동 행동 척도는 반응성(responsiveness) 척도와 아동의 부모 관련(involving) 척

도로 구성되어진다.

민감성 척도는 부모가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를 평가하고, 구조화 척도는 아동에 의해 수용되는 방식으로 부모가 구조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비침해적인 그리고 비적대적인 척도는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행동을 평가한다. 또한 아동의 반응성 척도는 아동이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평가하며, 아동의 부모 연관 척도는 부모를 자신의 놀이로 개입시키는 아동의 능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는 심리학과 대학원생 2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각 척도들에 대한 두 평정자 간의 신뢰도는 .91-.94로 나타났다. 평가는 아동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이루어졌으며, 불일치를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문제행동척도(K-PIC: 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판 아동용인성검사(K-PIC)를 사용하였다. 이는 Wirt와 Broen(1958)에 의해 개발된 검사로, 김승태, 김지혜, 송동호, 이효경, 주영희, 홍창희, 황순택 등에 의해 국내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판이 개발되었다(1997).

검사문항은 255문항이고 16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4개의 타당도 척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적응 잠재력을 측정하는 자아 탄력성척도, 11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된다. 임상척도는 언어 발달척도(VDL:

Verbal development line), 운동 발달척도(PDL: Proper developmentline), 불안척도(ANX: Anxiety), 우울척도(DEP: Depression) 신체화척도(SOM: Somatization), 비행척도(DLQ: Delinquency), 과잉행동척도(HPR: Hyperactivity), 가족관계척도(FAM: Family), 사회관계척도(SOM: Social), 정신증척도(Psy: Psychiatry), 자폐증척도(AUT: Autism) 등이 있다. 각 척도별 신뢰도는 척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75내외였으며, 본 연구에서 각 척도별 신뢰도는 .65-.74였다.

가족그림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족 표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Fury(1996)에 의해 고안된 가족화그림 척도를 이용하였다. 가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들은 생명력/창조성, 가족에 대한 긍지/행복감,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분노, 역할전이, 기이함 척도들이며 모두 7(1-7)점 척도들로 구성되어진다. 구체적으로 생명력/창조성은 그림에서 장식, 상세함, 창조성에 반영된 아동의 노력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가족에 대한 긍지/행복감은 가족구성원에 소속감 혹은 행복감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취약성은 인물들의 크기 왜곡, 위치, 신체 일부의 과장에서 반영된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다음으로 정서적 거리감은 아동과 가족 사이의 중립적 혹은 부정적 정서, 거리감과 관련된 척도이며, 긴장/분노는 색채나 상세함이 없이 갑갑하게 보이는 인물들에 반영된 긴장, 분노를 나타낸다. 역할전이는 인물들의 역할 혹은 크기에서 반영된 역할전이의 특징들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기이함은 그림에 나타난 이례적인 상징들, 환

상적인 주제들과 관련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화에 대한 평가는 심리학과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각 척도들에 대한 두 평정자 간의 신뢰도는 .89-.92로 나타났다. 평가는 아동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이루어졌으며, 불일치를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동들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알아보았고, 아동들의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가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 후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을 위한 사례수가 적은 비조직화 애착 유형을 제외하고 안정, 회피, 저항 애착 유형의 세 집단 간 차이 검정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

맨체스터 애착이야기 검사를 통해 얻어진

아동들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유형 분포(ABC)에 있어서는 24%인 15명이 회피유형, 55%인 34명이 안정애착, 21%인 13명이 저항애착으로 분류되었다. 비조직화 애착 유형을 포함한 네 가지 유형분포(ABCD)에 있어서는, 21%인 13명이 회피유형, 51%인 32명이 안정애착, 18%인 11명이 저항애착, 10%인 6명이 비조직화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 아동 애착 유형별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애착 유형별로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행동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 후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안정 대 회피 대 저항 아동 애착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민감성, 구조화, 비간섭적인, 비적대적인 행동)과 아동의 상호작용 행동(반응적, 부모를 관련시키는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비적대적 행동($F=6.63$, $p<.01$)과 아동의 반응적 행동($F=5.44$, $p<.01$), 아동의 부모를 놀이에 관련시키는 행동($F=8.73$, $p<.001$)이 애착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e검증 결과, 어머니의 비적대적 행동에 있어서는 안정 애착 집단과 저항 애착 집단 아동 어머니들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안정 애착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저항 애착 아동들의 어머니들에 비해 덜 적대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 1. 아동 애착에 따른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어머니- 아동 상호작용	1. 안정성 (N=34) M(SD)	2. 회피형 (N=15) M(SD)	3. 저항형 (N=13) M(SD)	F	Scheffe
민감성	6.59(1.83)	5.67(1.23)	5.77(.93)	2.45	
구조화	3.97(.90)	3.80(.78)	3.69(.48)	.64	
비간섭적	4.09(.67)	3.73(.70)	3.85(.56)	1.74	
비적대적	4.68(.64)	4.47(.99)	3.85(.38)	6.63**	1>3
반응성	5.74(1.26)	4.47(.83)	5.46(1.56)	5.44**	1>2
관련성	6.38(.60)	5.33(1.35)	5.77(.60)	8.73***	1>2

* < .05, ** < .01, *** < .001

한 아동의 반응적 행동, 아동의 부모를 놀이에 관련시키는 행동에 있어서는 안정 애착 아동들과 회피 애착 아동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안정 애착 아동들이 회피 애착 아동들보다 어머니에 대해 반응적이고 놀이에 어머니를 보다 관련시키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애착 유형과 문제행동

다음으로 아동의 애착 유형별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 후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안정 대 회피 대 저항 아동 애착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자아탄력($F=5.06$, $p<.01$), 우울($F=4.77$, $p<.05$), 비행 행동($F=3.48$, $p<.05$)에 있어 애착 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e검증 결과, 안정 애착 유형 아동들이 저항 애착 유형 아동들보다 자

아탄력 척도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우울과 비행 문제 행동 척도에서는 저항 애착 유형 아동들이 안정 애착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4. 아동의 애착 유형과 가족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아동의 애착 유형별로 가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 후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안정 대 회피 대 저항 아동 애착에 따라 생명력/창조성, 가족에 대한 긍지/행복감,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분노, 역할전이, 기이함, 병리 척도들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생명력/창조성($F=3.31$, $p<.05$), 기이함($F=3.30$, $p<.05$)에 있어 애착 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e검증 결과, 안정 애착 유형 아동들이 회피 애착 유형 아동들보다 생명력/창조성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기이함

표 2. 아동 애착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문제 행동	1. 안정성 (N=28) M(SD)	2. 회피형 (N=13) M(SD)	3. 저항형 (N=10) M(SD)	F	Scheffe
자아탄력	40.82(13.29)	32.15(5.68)	29.10(10.96)	5.06**	1>3
언어발달	51.04(14.54)	55.23(13.31)	57.80(18.01)	.88	
운동발달	52.82(13.22)	52.62(11.64)	55.50(13.60)	.18	
불안	51.64(10.71)	51.08(6.40)	55.50(15.98)	.55	
우울	51.68(12.29)	60.85(7.89)	62.10(11.57)	4.77*	1<3
신체화	49.11(12.39)	46.23(12.85)	51.30(15.45)	.44	
비행	51.86(12.44)	57.23(12.06)	64.40(16.17)	3.48*	1<3
과잉행동	56.93(12.50)	65.00(12.92)	66.40(11.53)	3.12	
가족관계	53.57(15.59)	54.15(11.92)	59.40(12.22)	.65	
사회관계	53.89(7.98)	58.85(4.78)	56.70(10.33)	1.87	
정신증	46.89(10.90)	49.77(21.19)	57.00(22.11)	1.39	
자폐증	52.54(14.03)	63.38(13.89)	59.78(18.87)	2.58	

* < .05, ** < .01

표 3. 아동 애착에 따른 아동의 가족화 척도

가족화 척도	1. 안정성 (N=28) M(SD)	2. 회피형 (N=10) M(SD)	3. 저항형 (N=10) M(SD)	F	Scheffe
생명력/ 창조성	4.21(1.62)	3.00(.67)	4.30(.95)	3.31*	1>2
가족금지/ 행복	4.36(1.39)	3.30(.82)	4.30(.68)	3.10	
취약성	4.14(1.65)	5.20(.92)	4.60(.70)	2.24	
정서적 거리감	4.54(1.53)	4.80(.92)	4.70(1.25)	.16	
긴장	3.57(1.50)	4.80(1.03)	3.50(1.51)	3.06	
역할전이	3.39(.96)	3.60(.52)	3.30(1.06)	.30	
기괴함	1.71(.76)	2.50(1.08)	1.80(.79)	3.30*	1<2
병리	3.32(1.57)	3.90(.99)	3.00(1.25)	1.10	

* < .05

척도 점수에 있어서는 회피 애착 유형 아동들이 안정 애착 유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을 분류해보고,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문제행동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가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동들의 애착 유형 분포에 있어서는, 회피 유형 21%, 안정 애착 51%, 저항 애착 18%, 비조직화 유형 10%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를 이용했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Goldwyn 등(2000)의 연구에서는 회피 애착 26%, 안정 애착 62%, 저항 애착 8%, 분류할 수 없음 4%의 분포를 나타내,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불안정 애착 유형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같은 평가도구는 아니지만,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을 통한 평가도구라는 점에서 유사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 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Bretherton 등(1990)은 65.5% 안정 애착, 20.7% 회피 애착, 13.8%의 비조직 유형을 보고하여,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에서 불안정 애착 유형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임상군 아동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의 분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아동들의 애착 유형별로 어머니-아동

의 상호작용 행동들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되어졌고, 그 결과 아동이 안정 애착인 집단의 어머니들이 저항 애착인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비적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이 회피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보다 반응적이고, 놀이에 부모를 관련시키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과 어머니들이 보다 적절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칠고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양육자에 대한 저항적 표상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와, 양육자와 회피적 표상을 형성한 아동들이 상호작용에 있어 덜 반응적이고 덜 적극적인 회피적 경향을 보인 연구 결과는 양육행동과 애착관계 형성과의 관련성을 논의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Ainsworth et al., 1978; Belsky, Rovine, & Taylor, 1984; Isabella, & Belsky, 1991).

셋째, 아동들의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분석결과 안정 애착 유형 아동들이 저항 애착 유형의 아동들보다 자아탄력 척도 점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항 애착 유형 아동들이 안정 애착 아동들보다 우울 척도, 비행 척도 점수에서 높았다. 즉,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들일수록 우울과 과잉행동 등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고, 스트레스나 역경 등의 위협적 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불안정 애착과 문제 행동간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문제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Muris와 그의 동료들(2003)의 연구 결과나,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일수록 내현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음을 보고한 Allen(1998)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청소년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한 국내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희, 2001; 윤진영, 2001).

그러나 어떤 종류의 애착 유형이 어떤 종류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관련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Kobak 등(1991)은 우울과 몰두형 애착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고, Rosenstein과 Horowitz(1996)는 몰두형 애착이 정동장애와 회피형 애착이 품행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몰두형 애착이 안정형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장휘숙(1997)은 회피형의 청소년들이 우울증 척도, 강박증 등의 내향성 척도와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도 특정 애착 유형과 어떠한 문제행동이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측정도구와 다양한 대상을 사용하는 등 연구방법에서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동들의 애착 표상 유형에 따라 그들의 가족 그림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인식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이 그림에 있어 보다 생명력과 창조성이 나타났으며, 반면 회피 유형으

로 분류된 아동들은 그림에 있어 기괴함 과 같은 부정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 애착 아동들이 가족 그림에서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불안정 애착 아동들이 그림에서 분노나 적대적인 특성, 기이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김숙령, 1995; 진미경, 이경숙, 2007; Fury, 1996; Myers, 1978; Weinstein, 1965).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안정 애착 아동들과 저항 애착 아동들 간의 가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수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의 애착 유형별로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 아동의 문제 행동, 가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나레이티브 분석을 통해 애착 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 애착 유형에 따른 특성을 변별하는 변별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나레이티브를 통한 애착 평가 방식이 임상적으로 유용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제기되는 바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들의 내진의 어려움으로 가족화와 아동인성 검사의 경우 전체 참여 대상에게 실시를 할 수 없었다. 세부 애착 유형별로 보다 변별력 있는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맨체스터 아동 애착이야기 검사를 통해 아동의 애착 관계 평가를 처음으로 적용한 연구라는 점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위한 반복적인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숙령 (1995). 유아의 애착상태와 유치원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5(1), 21-38.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 대인 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 나유미 (199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응임 (1994).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응임, 유명희 (1997).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영아기의 낯선 상황 애착 유형과 유아기의 애착 안정성. *아동학회지*, 18(2), 33-46.
- 성희용, 방희정, 이순행 (2005). 문제해결 상황에서 어머니 행동 특성과 애착 안정성이 유아의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57-74.
- 윤진영 (2001).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과 자기지각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진미경, 이경숙 (2007). 아동기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가족화 연구. *아동학회지*, 28(4), 187-196.
- 이소희 (2001). 청소년의 애착 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영환 (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미자 (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휘숙 (1997). 애착과 MMPI 하위 척도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323-341.
- 진미경, 유미숙 (2005). 애착측정 도구들에 대한 개관: 시기별, 영역별 애착 평가를 위한 친구들의 개관. *인간발달연구*, 12(4), 139-158.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Allen, J. P., Moore, C., Kuperminc, G., & Bell, K.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5), 1406-1419.
- Belsky, J., Rovine, M. J., & Taylor, D. G.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73). *A secure base: Parent-child*

-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0). Open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Their role in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R. A. Thompso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6. Socioemotional development* (59-113).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293-308). Chicago Press.
- Biringen, Z., Robinson, J. L., & Emde, R. N. (2000). Appendix B: 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 256-270.
- De Wolf, M. S. & Van IJz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71-591.
- Fury, G. (1996). The relation between infant attachment history and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in school-aged family draw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Goldwyn, R., Stanley, C., Smith, V., & Green, J. (2000). 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relationship with parental AAI, SAT and child behaviour.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 71-84.
- Green, J., Stanley, C., & Goldwyn, R. (2003).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Manchester.
- Grossmann, K., Grossmann, K. E., Spangler, G., Suess, G., & Unzner, L. (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33-256.
- Isabella, R. A., & Belsky, J. (1991). Interaction a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fant -mother attachment: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 384.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1-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12.
- Lyons-Ruth, K., Repacholi, B., McLeod, S., & Silva, E. (1991). Disorganized attachment behavior in infancy: Short-term stability, maternal and infant correlates, and risk-related subtyp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377-396.
- Main, M., George, C., & Kaplan, N. (1985). *The Berkeley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uris, P., Merckelbach, H., van Spauwen, I.

- (2003). The emotional reasoning heuristic in childre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3), 261-272.
- Myers, D. V. (1978). toward an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 for the Kinetic Family Drawings (K-F-D).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358-365.
- Rosenstein, Diana S, Horowitz, Harvey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44-253.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 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1 차원고접수 : 2009. 04 .02.
수정원고접수 : 2009. 07. 13.
최종게재결정 : 2009. 08. 28.

**A Clinical Application of 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 Based on the Narrative Method:
The Relationship to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Perceptions Regarding Family**

Jin, Mi Kyoung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clinical application of 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 based on the narrative method to analyze relationships to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perceptions about family.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62 children aged between six and nine was evaluated by means of the Manchester Attachment Story Task (MCAST). Mother-child interactions were observed through 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 (EAS) while family drawings were evaluated through Fury's family drawing scale. Mothers completed the 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 to evaluate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are as follows. When it comes to 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 types, 13 children (21%) were avoidant, 32 (51%) were secure attachment, 11 (18%) were resistant to attachment, and 6 (10%) exhibited disorganized attachment behaviors. There was a difference in maternal non-hostility between secure vs. resistant groups.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child responsiveness and involving sub-scales between the secure vs. avoidant groups. In terms of behavioral problems, there were differences in ego resilience, depression, and delinquency sub-scales between the secure vs. resistant groups. Regarding the perceptions about the family, there were differences in vitality/creativity and bizarreness between the secure vs. avoidant groups.

Key words : child attachment, mother-child interaction, behavioral problem, perception about family